

<2022년 5월 27일 금요기도회 성령절 말씀>

- <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>은 ‘주를 알게 하기 위함’입니다.
- <하나님>도 ‘하나님이 보낸 주’를 증거하십니다.

그를 통해 <시대 말씀>을 주시며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알고 이루게 하십니다.

- 마태복음 16장 16~17절을 보면,

<베드로>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

“<주>는 ‘그리스도’ 시오,
‘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’ 이시니이다.” 하니,

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
<혈육>이 아니요, <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>시다.

<아버지>께서 ‘말씀’ 해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다.” 하셨습니다.

- <말씀>을 통해 ‘구원자’를 알게 됩니다.

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

“<말씀>이 <육신>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
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‘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’ 이더라.”
했습니다.

- <성령님>은 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,
<하나님이 보낸 자>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.

- 신약시대 때도
<예수님>이 하늘로 떠나시고 <성령님>이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.

사람들은 <성령의 역사>를 통해
<예수님>이 ‘구세주, 하나님이 보낸 자’ 라는 것을
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

그리고 <성령>을 받고 ‘그리스도 예수님’ 을 증거했습니다.

- <성령님>이 ‘말씀’ 하시고 ‘감동’ 을 주셔야,
<자기 영도 혼도 마음>도 근본적으로 ‘주’ 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.

- 2009년에 <조은 목사>가
대둔산호텔에서 ‘교역자 모임’ 을 하기 위해 입구에 들어가는데,
화면에서 <선생님이 말씀을 외치는 것>을 듣고,
<말씀>으로 ‘성령의 불’ 을 뜨겁게 받았다고 했습니다.

- 그때 깨달아지기를

‘그래! 선생님같이 <말씀>을 ‘불’ 같이 외치자.

<말씀>을 외치면 <성령>이 역사하셔서

모두 <말씀>을 들을 때

‘힘’ 과 ‘성령의 불’ 을 받게 된다.’ 했습니다.

그리고 앞에 나가서 <전국 교역자 집회말씀>을 불같이 전할 때,
<성령의 역사>가 ‘불’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

모두 <말씀>을 통해 <성령의 불>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.
이때부터 <이 시대 성령의 역사>가 시작된 것입니다.

- <성령의 역사>는 ‘섭리 세계’ 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

그로 인해 모두 <심령>도 <영>도 <육>도 살아나서
그 심정을 가지고 <부활의 역사>를 이루고,
<휴거 역사>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

- 성령님은 지금도
<말씀>을 통해 <불같은 성령의 역사>를 일으켜 오고 계십니다.

또한, <기도>를 통해 <불같은 성령의 역사>를 일으키고 계십니다.

- 모두 <이 시대 성령의 역사>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,
<성령절>을 맞아야 됩니다.

- 지금도 <말씀>을 외칠 때 듣고 받아들이면,
<성령의 역사>가 불붙게 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>을 통해
<성령의 불>이 ‘교회’ 와 ‘각 개인’ 에게
뜨겁게 번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.